

이바라 시립 히라쿠시 덴추 미술관

조각가 히라쿠시 덴추(1872~1979)는 폭넓은 스타일로 감성이 풍부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바라에서 태어나 10 살 때 히로시마현 후쿠야마 근교의 가정에 양자로 들어가 1897년 상경 후 도쿄에서 성공하기까지 히라쿠시 덴추는 수년 동안 고군분투했습니다. 덴추의 작품은 오카쿠라 덴신(1863~1913)을 비롯한 저명한 미술 지도자들의 찬사를 받으면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덴신을 열렬히 동경한 덴추는 덴신이 사망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덴신을 모델로 한 걸작을 다수 제작했습니다. 1944년 덴추는 일본 황실의 미술 공예가로 임명되었고, 이바라시에서는 덴추의 업적을 전시하기 위해 1970년에 이 미술관을 건설하였습니다. 미술관은 이바라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 중심부에 있었는데, 덴추가 직접 방문했을 때 건물 앞에 있는 녹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미술관 소장품은 덴추의 예술 주제가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요괴가 사람을 뱉어내는 무시무시한 작품 ‘전생(轉生)’처럼 불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인물을 묘사한 작품도 있는가 하면 친근한 주제에 초점을 맞춘 작품도 있습니다. ‘큰딸’이라는 작품은 집이 가난해 라디오가 없어 두 손을 귀에 대고 무릎을 끊고 이웃집의 라디오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덴추의 딸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덴추의 대표 작품 중 하나인 ‘가가미지시’는 가부키(일본 전통극) 배우 6대 오노에 기구고로(1885~1949)가 동명의 가부키 연극 의상을 입고 있는 인상적인 모습을 표현한 조각상입니다. 가가미지시 조각상은 일반적으로 도쿄의 국립극장 로비에 세워져 있는데, 이곳에는 시작품 및 미완성작이 전시되어 있습니다.